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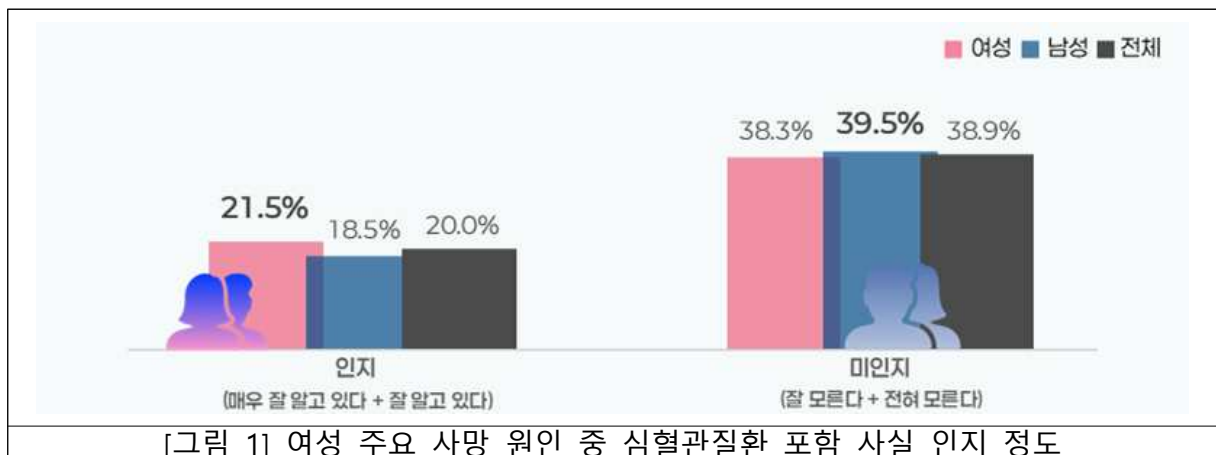
심혈관질환 성차 인식 미흡... 성별 맞춤 진료지침 마련 필요성 확인

- 심혈관질환이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임을 인지하는 비율 20%에 불과
- 성차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예방·치료의 필요성 국민 다수 공감
- 성별차이 인식 제고 위한 교육 강화 및 성별 차이에 따른 예방·관리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성별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성차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 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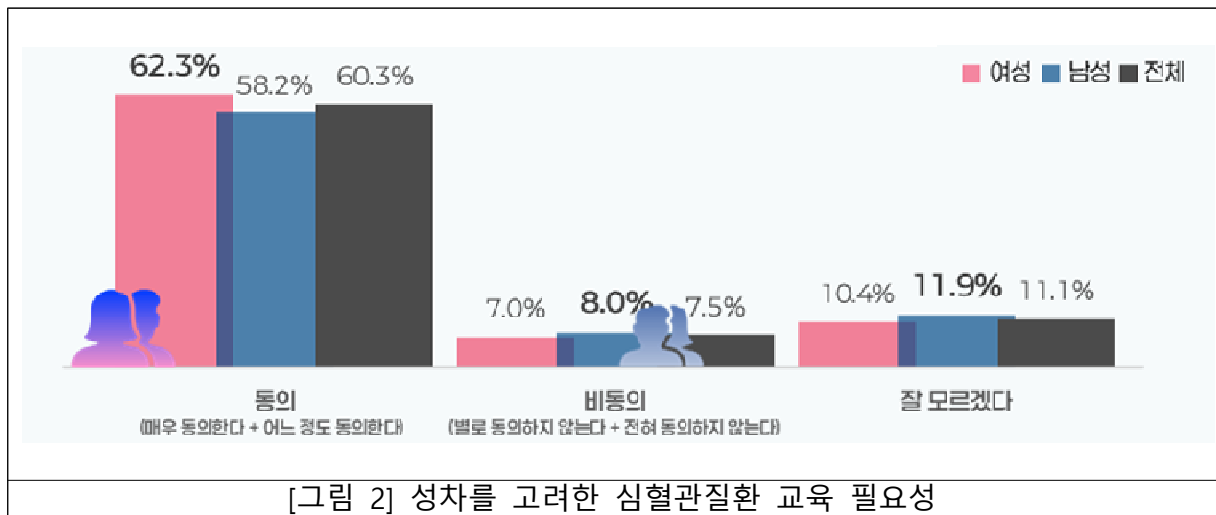
* (과제명) 성차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 ('25~'28, 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성미 교수)

심혈관계질환은 성별에 따라 증상과 위험요인이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붙임2), 성별 차이에 대한 인지도가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응답자의 약 20%만이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심혈관질환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그림1), 남성과 여성의 심혈관질환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도 23.5%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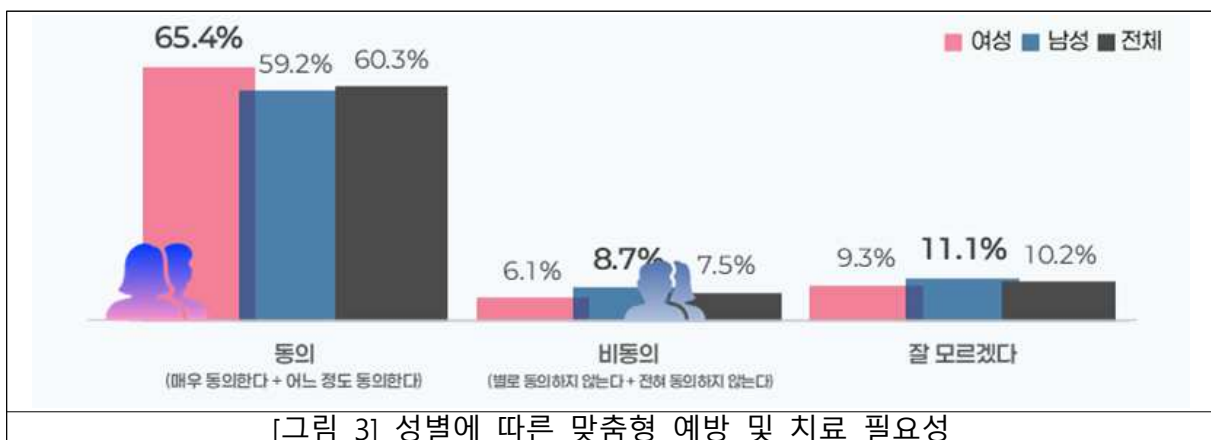
*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발생 시 남성과 여성의 증상이 다를 수 있다 의견 동의 정도 :
‘동의’ 23.5%, ‘보통’ 48.3%, ‘비동의’ 28.2%



또한,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차를 고려한 심혈관질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그림2)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접한 경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 최근 1년간 성별 차이를 고려한 심혈관질환 정보나 교육을 접한 적이 있는지:
‘전혀 본 적 없다’ 68.9%. ‘가끔 본다’ 27.0%, ‘자주 본다’ 4.1%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에서 성별에 따른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그림3) 했으며 여성의 동의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반면, 성차를 고려한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관심·지원의 강화 필요성이 드러났다.

* 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
‘그렇다’ 27.7%, ‘그렇지 않다’ 29.3%, ‘잘 모르겠다’ 11.8%, ‘보통이다’ 31.2%

해당 조사를 수행한 박성미 교수(연구책임자)는 “본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혈관계질환의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한 것으로, 여성에게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간과하거나 남녀 위험 요인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차 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지도 부족은 적절한 예방과 조기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진료지침과 권고안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료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공청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 기반 연구를 강화하고, 임상 현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성차연구 지원 및 인식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지도 조사 자료는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진들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www.nih.go.kr)*에 공개되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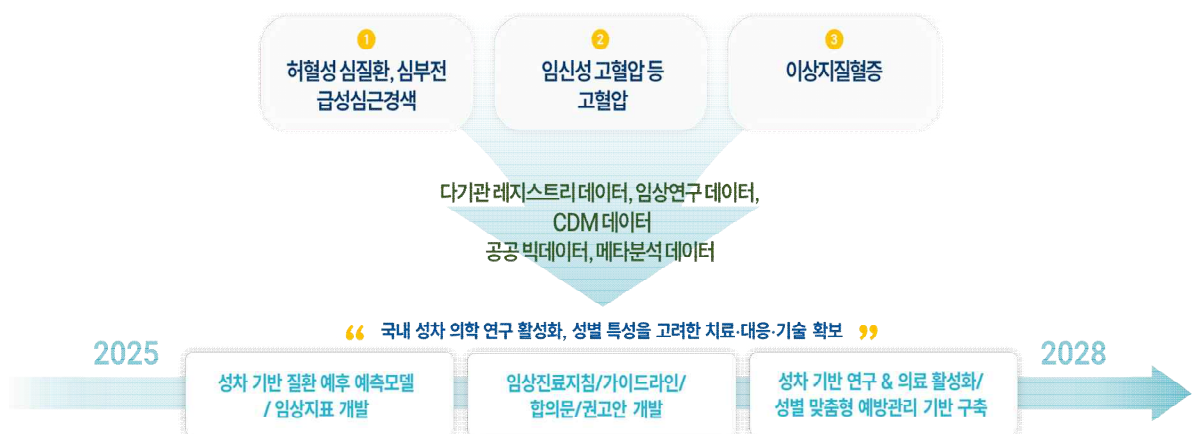
*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www.nih.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간행물

- <붙임> 1. 성차기반 심혈관계질환 연구 개요
2. 일반인 대상 심혈관계질환 성차 인지도 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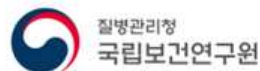
<별첨> 일반인 대상 심혈관계질환 성차 인지도 조사 결과 보고서

담당 부서 <총괄>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질환연구과	책임자	과 장	임현정 (043-719-8650)
		담당자	연구관	김근영 (043-719-8655)
협력기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책임자	연구사	김수진 (043-719-8664)
		담당자	교 수	박성미 (02-920-5445)
			연구간호사	박정은 (02-920-8636)

- (과제명) 성차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
- (연구기간) 2025. 5. 1. ~ 2028. 12. 31.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고려대안암병원 / 박성미 교수
- (목적) 성차를 반영한 심혈관계질환 예방·치료 개선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통해 성차 맞춤형 예방·진단·치료·관리 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연구내용
 - 심혈관계질환 세부질환별* 레지스트리, 코호트 연구, 병원임상자료, 공공빅데이터 등 가용 데이터 확보 및 2차 자료 연계 방안 등 연구 전략 수립
 - * 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빅데이터, 급성심근경색,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 공공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료 분석 및 기 연구결과에 대한 메타 분석
 - 세부질환별 성차요인 발굴 및 기전 규명, 성별 차이를 반영한 건강관리 개선, 약물 및 진단·의료기기 활용, 보건중재 이행 최적화 등 성차 연구 수행
- 추진내용 요약



2025년 일반인 대상 심혈관계질환 성차 인지도 조사 결과 안내



감사인사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국립보건연구원
[일반인 대상 심혈관계질환 성차 인지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국민 여러분,
조사 현장에서 정성껏 안내하고 지원해 주신 조사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이번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

- 담당기관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담당자 및 전화번호

-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심혈관센터 최정혜, 박정은 연구원 (02-709-6836)
- ▶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질환연구과 김수진 연구사 (043-719-8664)

- 발 행 일 : 2025년 11월

1. 일반인 대상 심혈관계질환 성차 인지도 조사 개요

조사 목적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혈관계질환의 성별 인지 차이 분석
- 성별에 따른 질환 특성과 인지율을 파악하여 맞춤형 진단·치료 및 국민 건강 증진에 활용
- 개인별 맞춤 치료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 수집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5.7.14 ~ 7.31 (약 3주간)

✓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전화 병행조사

✓ 조사대상

- 전국 거주 만 20세 ~ 80세
- 성인 남녀 2,003명



✓ 표본추출

연령(6단계) 및 지역(8대광역시/비광역시) 기준
층화계통추출법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전체 모집단을 특정 기준(예: 성별, 연령, 지역 등)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 비율에 맞게 표본을 뽑는 방법

조사 내용 구성

✓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문항

- 임상연구 참여 경험
-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 심혈관계질환 진단 여부 및 가족력
- 직업, 흡연·음주 여부

✓ 심혈관계질환 관련 문항

- 심혈관계질환 성차 인지도
-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질문
- 각 질환별 이해도 및 예방 인지
- 차별화된 진료 및 사회적 시스템 필요성

활용 목적

- 성별 인지 차이를 반영한 예방 교육 및 정책 기획 근거
- 국민 맞춤형 심혈관계질환 관리체계 수립 지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2. 일반인 대상 심혈관계질환 성차 인지도 조사 주요 결과

✓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심혈관계질환 포함 사실 인지 정도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심혈관계질환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림 1]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심혈관계질환이 포함된다” 사실 인지 정도

[Base : 전체, N=2,003, 단위 : %]



- 연령별로는 60대, 지역별로는 전북의 '인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질환 진단 여부 및 가족력 여부는 있는 경우가 '인지' 비율이 높았습니다.
- 음주 및 흡연 여부는 음주 및 흡연을 하는 경우가 '인지' 비율이 높았습니다.
- 차이검증을 위해 응답 표본간 X²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 월 평균소득, 질환 진단 여부, 음주 여부, 가족력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여성은 남성과 달리 특이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다’ 사실 인지 정도

여성은 남성과 달리 특이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림 2] “여성은 남성과 달리 특이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다” 사실 인지 정도

[Base : 전체, N=2,003, 단위 : %]



- 연령별로는 20대, 지역별로는 서울의 '인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질환 진단 여부 및 가족력 여부는 있는 경우가 '인지' 비율이 높았습니다.
- 음주 및 흡연 여부는 음주 및 흡연을 하는 경우가 '인지' 비율이 높았습니다.
- 차이검증을 위해 응답 표본간 X²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 권역, 월 평균소득, 질환 진단 여부, 흡연 여부, 가족력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2. 일반인 대상 심혈관계질환 성차 인지도 조사 주요 결과

✓ '심혈관계질환 치료약물 및 시술 등에서 성별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 사실 인지 정도

심혈관계질환 치료약물 및 시술 등에서 성별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를 수 있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림 3] "심혈관계질환 치료약물 및 시술 등에서 성별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 사실 인지 정도

[Base : 전체, N=2,00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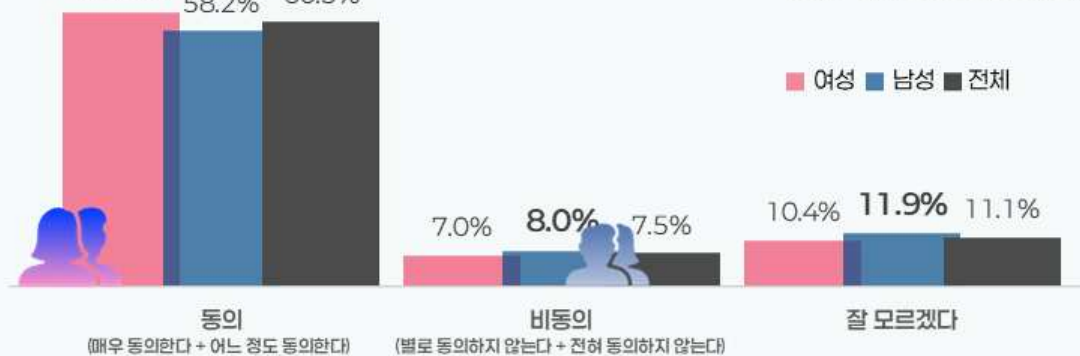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40대, 지역별로는 인천의 '알고 있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질환 진단 여부 및 가족력 여부는 있는 경우가 '알고 있다'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 음주 및 흡연 여부는 하는 경우가 '알고 있다'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 차이검증을 위해 응답 표본간 X²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연령, 권역, 지역, 월 평균소득, 질환 진단 여부, 음주 및 흡연 여부, 가족력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성차를 고려한 심혈관계질환 교육의 필요성

성차(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심혈관계질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4] 성차에 따른 심혈관계질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Base : 전체, N=2,003, 단위 : %]



- 연령별로는 60대, 지역별로는 대구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질환 진단 여부 및 가족력 여부는 있는 경우가 '동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 차이검증을 위해 응답 표본간 X²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 권역, 지역, 월 평균 소득, 질환 진단 여부, 음주 여부, 가족력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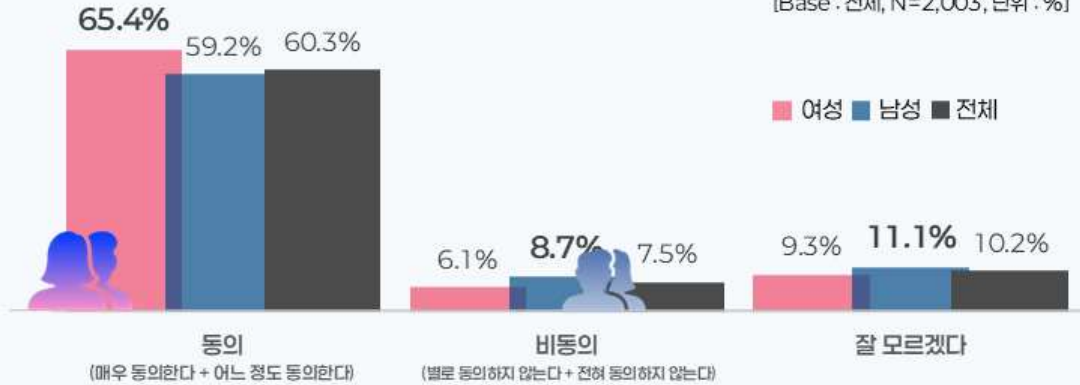
2. 일반인 대상 심혈관계질환 성차 인지도 조사 주요 결과

✓ 성별에 따른 맞춤형 예방 및 치료의 필요성

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치료에서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 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치료에서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Base : 전체, N=2,003, 단위 : %]



- 연령별로는 50대, 지역별로는 강원도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가족력 여부는 있는 경우가 '동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 차이검증을 위해 응답 표본간 X²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 권역, 지역, 최종학력, 월 평균소득, 질환 진단 여부, 흡주 여부, 가족력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안내

- 본 인포그래픽은 국립보건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사업(2025-ER0905-00) 지원으로 제작됨. 상세 조사 결과는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www.nih.go.kr) 참고.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